

# ‘KEY PUNCH실의 문을 연다’

## -Key punch실의 창설-

### 이춘희

“여기는 비좁고 더우니까 새집(홍릉 KIST 건물)으로 이사가면 출근하도록 하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1968년 초여름 어느날 종로 YMCA 건물로 KIST 전산실장이신 성 박사님을 처음 면접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셨다.

이춘희라는 사람됨을 살펴봄도 없이 이미 결정된 듯한 확고한 의사 표시에 마음의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약간 당황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성 박사님을 뵈을 때 사람을 믿고 맡기시는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 당시 나는 국내에서 최초로 컴퓨터시스템(Punch Card System, IBM 1401)을 이용하여 인구 센서스 통계처리를 하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는 전자계산 컴퓨터라는 용어조차도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들리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오늘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동기가 되었고 더욱 성 박사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이다.

성 박사님께서 필자에게 요구한 업무는 키펀치실의 설치 및 운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KIST 연구원의 입소 자격은 경제 및 이공 계열 출신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문과 출신은 당연히 자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특수 기술분야(그 당시 키펀치가 첨단기술로서 인기가 있었음)에 종사한 덕으로 채용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때 성 박사님께서 필자의 채용을 결정하여 총무과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인사담당(김태무

씨)이 전공을 묻기에 문과라고 하였더니 난색을 지으면서 손수 부전공에 전산이라고 적어주었던 일이 생각난다.

후에 이러한 규정을 과감히 타파하여 어느 전공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거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신 분이 성 박사님으로 오늘날 모든 분야에 컴퓨터가 필수적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이다.

CDC 3300이라는 거대한 컴퓨터(그 당시 슈퍼컴퓨터급)의 도입을 앞에 두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의 입력을 위한 장비와 요원 확보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입력은 터미널 또는 PC, Workstation 등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Punch card를 사용하여 Mainframe에 직접 읽히는 통신개념이 전혀 없는 single user용 시스템으로 자료 입력하면 Punch card가 대명사이었다.

1968년 6월, 같이 근무하는 유능한 Key puncher 세 사람(임선자, 박세자, 한진희)을 선발하여 KIST로 보내어 일을 시작하게 추천하였다. 이로써 KIST 전산실의 키펀치 업무가 시작되었고 그때 사용한 기계는 IBM 029(Punch)와 IBM 059(Verifier)이었다.

필자가 1968년 8월 1일 KIST에 첫 출근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펀치실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소풍지로만 알았던 홍릉 입업시험장의 아름다운 수목들을 뒤로 남기며 출퇴근하는 맛과 점심시간이면 뒷산(그 당시는 운동장도 철조망도 없이 울창한 산이었음)에 올라 경희대학을 내려다보면서 산보하는 즐거움 또한 KIST의 일원이 된 것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조건 중의 하나였다.

전산실은 건물(L-2 건물 하나 뿐, A-1 건물 건축중이었음) 3층 남향의 봉대로 칭칭 감은 천정을 한 두모듈 남짓한 방에 성 박사님을 비롯하여 손정신 씨(비서 타자수), 이명재 씨(현 부산대 교수), 이승윤 씨(작고), 안문석 씨(현 고대 교수), 금창기 씨(작고), 한윤경 씨(현 경원대 사무처장), 염금자 씨(미국 이민), 김길수 씨(현 삼도 데이터 시스템 사장), 정호 씨(미국 이민), 그리고 이봉진 선생님이 한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펀치실 운영 준비는 미국에서 사사받아 실시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제반 규범을 참고로 하여 KIST 전산실 조건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하였고 펀치실 Power설치 위치 결정, IBM에 Punch Machine 임대 계약 등을 하고 펀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적성검사, 영어)을 실

시하여 20여명을 선발하였다. 일차에는 무경험자를 선발하여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였는데 69년 7월에 5명, 69년 9월에 16명이 발령을 받아 70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처리(행동과학연구소와 KIST 전산실 공동으로)를 위하여 대비를 하였다. 이렇게 훈련된 KIST 천공수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류급의 기술자들이었고 후에 슈퍼바이저로 근무한 최영자 씨, 이은숙 씨(현 연합정보 서비스 사장)은 그때 입소한 분들이다. 이후부터는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게되어 숙련된 기술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편치실의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추어짐에 따라 일선 실무 운영은 임선자 씨가 맡아서하고 필자는 편치실 운영 계획과 총괄 관리만하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과기처의 최초 프로젝트인 전산기에 의한 정보은행시스템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 성기수 박사, 연구비 : 200만원, 기간 : 1969. 5 ~ 1969. 12)를 유완영 씨(현 한국통신 정보통신연구소 소장)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수준은 프로그래밍 교육(COMPASS(CDC기계의 어셈블리어), FORTRAN, COBOL, 전산기구조 등)을 받은 정도에서 국내에서 자문을 해결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힘들 때였으므로 참고자료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휴일도 거의 없이 일에 열중해야 했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 그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력정보은행시스템을 위주로 한 범용 EDPS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7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즉 1. 입력서브시스템, 2. 검색서브시스템, 3. 검색보고서 인쇄 서브시스템, 4. 프로파일 인쇄 서브시스템, 5. 번역 서브시스템, 6. 통계 서브시스템, 7. 갱신 서브시스템 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검색분야의 국내에서 최초로 설계된 프로토타입으로 현 수준에서 바라볼 때 기본구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Parameter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 그리고 KIST에 설치된 CDC 3300시스템에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여(FORTRAN) 성공적으로 수행시킨 점(에피소드 한가지로 프로그래밍은 이상이 없는데 read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CDK 이덕순 선생님(현 삼보 소프트웨어 사장님)과 debugging중에 수만번의 Dummy Looping을 넣어 해결함)등을 볼 때 기본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어 지금도 이 보고서를 때로 펼쳐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하곤 한다.

환언하여, 이와 같이 중복된 업무로 69년을 매우 바쁘게 보낼 때 황규복 선생님께서 전산실

로 오시고( 69년 5월) 기계실 관리 책임도 맡으시게 되었다. 하루는 필자를 부르시더니 펀치실, 연구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말씀이셨다. 그렇지 않아도 프로젝트 수행에 거의 전념을 해야 할 때였고 펀치실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미안하던 차였으므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OK 하셨다. 물론 성 박사님께서 본인이 원하면 쾌히 승낙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필자는 펀치실업무에서 떠났고 후에 들어 온 사람들은 필자가 펀치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후 프로젝트 수행에 전념하게 되어 70년도에 EPB예산업무, 71년의 서울 특별시 전화요금 계산관리업무의 EDPS 개발연구, 대학입학예비고사 처리 등 많은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한 덕으로 76년부터 시스템 운영실로 옮겨 컴퓨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Punch Card의 전성시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컴퓨터 이용자 모두가 전문기술자가 된 것을 보면서 10여년의 세월에 급속히 발전한 컴퓨터 환경에 경이감을 금치 못한다.

성 박사님을 모시고 일해 온 지 어언 25년, 주마등같이 흘러간 회로애락의 세월이었지만 성 박사님께서 연구소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때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함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성 소장님께서 SERI를 떠나신 후 Payroll 번호가 가장 빠른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홍릉에 처음 출근하던 날, ‘봉급은 총무과에서 결정하고 연구실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돼’ 하시며 의자의 비닐을 손수 벗겨 주시던 동안의 모습이 생생한데 반백의 머리에 벌써 회갑을 맞으시니 남다른 감회가 마음 깊이 느껴진다.

항상 당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하시는 성 박사님을 뵈올 수 있기를 바란다.